

모두가 잘 사는 전북 실현

전북도,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 전국 최고 성과... 국비 138억원 확보

전북도는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3개소, 2017년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국비 333억 원 등 48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건강한 생활 인프라를 확

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2018년도에는 도시새뜰마을사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성장 해력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다시 추진되었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뜰마을사업이 필요한 곳을 사전에 발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을 신청, 총

30개소 중 전국 최다인 5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郡)지역 3개소(진안군, 장수군, 고창군)가 선정되어 군지역도 도시 새뜰마을사업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하였고,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새뜰마을사업은 모두가 잘 사는 전북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이 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연대 및 관계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 과학축전, 올해는 더욱 '풍성'

전년도 평가 통해 개선방안 마련

전북도는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과학적 상상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개최하면 '전라북도 과학축전'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8월말 무더운 시기에 개최되어 어린학생들이 폭서에 힘들어 했던 점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를 9월 20일로 변경하여 좋은 날씨에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부권 등 원거리 거주 학생들에게도 과학축전에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과학기술 및 코딩 등을 체험하고 즐기며 미래를 열어가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수송버스 운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많은 인원참여로 인한 체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체험부스 예약제 운영, 부스별 대기인원 안내, 사이언스공연 확대를 통해 부스에 물리는 인원 분산·해소 등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참가자들에게 과학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3D프린팅,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된 미래 신산업 관련 체험과 전시를 많이 준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과학축전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4회째 맞이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정거래의 날' 기관단체 표창 수상

전북도는 1일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독과점 시장경제를 유발하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유공을 인정받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기관단체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17개 광역단체(기초단체

포함)를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상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했다.

전북도는 2018년 14개 시·군을 포함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거

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2018년~2020년까지 3개년에 걸친 추진으로, 전체 규제개선 대상건수를 2018년 30%, 2019년 40%, 2020년 30%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독과점 시장 경제를 유발하는 인·허가 조건 등 진입규제, 지역사업자 우대의 차별규제, 등의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18년 목표치 30%를 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을 달성했다. /김진성 기자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전북도는 4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소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300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

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신규 추가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안내 공문을 발

송하는 등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시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 소포장 사용,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예외 규정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될 수 있는 제품, 휴 문은 채소 등의 속비닐 사용은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진성 기자

“경작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에 맡기세요”

농어촌소 전북, 임대수탁 접수 중... 전업농 중심 장기 임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를 지원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여 임대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

창업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어 도시민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매년㎡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675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76ha의 토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당신의 권리,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내일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월 3일 실시하는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전주시사전선거(서신동)]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선거일에 무료로 장애인 콜택시(이지콜)를 지원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선거인은 이지콜 콜센터(☎ 063-271-2727)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